

## PC-I-5. 골 결손이 동반된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

김예진\*, 이상현, 신승윤, 양승민, 계승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치과진료부 치주과

### 연구 배경

단일 치아 결손 부위의 임플란트에 의한 수복은 점차 일반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기능뿐 아니라 심미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악 전치부는 심미성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으로, 외상이나 치주질환 등에 의한 골결손이 복합되어있는 경우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발치후 즉시 또는 연조직 치유 후 즉시 식립으로 치조골의 흡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더불어 골결손 부위에는 GBR을 추가하는 술식은 많이 추천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골결손이 동반되는 상악 전치부에서의 임플란트 식립의 다양한 증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 재료 및 방법

첫번째 증례에서는 치근 파절로 #22 발치 8주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식립시 협측 천공 부위와 협측골과 매식체 사이의 gap 부위에는 자가골과 Bio-Gide를 이용한 GBR 술식을 시행하였고, 이차 수술시 남아있는 협측 열개 부위에 추가적으로 GBR 한 번 더 시행하였다. 술후 임시수복물을 장착하고 8개월 후 보철 치료가 완료되었다.

두번째 증례는 외상으로 인해 #22에 치근 외흡수가 진행되어 근관치료 시작 6년후 발치하였고, 7주후 임플란트 식립하였다. 협측골과가 심하여 식립시 협측골이 green stick fracture가 되어, Bio-Oss와 Ossix membrane 이용한 GBR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현재 임시수복물 장착 상태이다.

세번째 증례는 1년전 #22 파절로 post & crown 하였으나 계속되는 동요도로 발치한 경우로,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식립과 동시에 협측골과 매식체 사이의 gap 부위에는 Bio-Oss와 Ossix membrane을 이용한 GBR을 시행하였고 현재 임시수복물 장착 상태이다.

### 연구 결과

세 증례에서 모두 임상적으로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결론

협측골의 두께와 높이, 치은의 biotype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적절한 식립 시기를 결정하고, 부족한 골부위는 자가골, 또는 이종골을 이용하여 적절히 GBR을 시행한다면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증례에서도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